

韓國 官僚行態의 傳統文化的 諸要因

金 海 東*

《目 次》	
I. 序 論	1. 義理意識과 家族制度
II. 韓國家族制度의 社會的 特性	2. 義理意識의 順機能的 側面
III. 家族制度와 割據主義	V. 結 論
IV. 家族制度와 義理意識	

《要 約》

「이 研究은 우리나라의 傳統的 文化的 要因이 現代官僚組織에 어떻게 存在하고 機能하고 있는 가」를 假說의으로 說明하고자 한 것이다. 主로 韓國의 家族關係의 Pattern이 現代官僚社會의 割據

主義와 義理意識에 어떻게 作用하였고 이들이 나아가서 官僚腐敗를 包含한 病理現象을 如何히 造成하였는가.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順機能的인面은 어떠한 것인가를 說明코져 試圖한것이다.

I. 序 論

近者에 美軍의 撤收問題의 論議와 大體로 때를 같이하여 韓國社會에서는 自主性 主體性을 提高하기 爲한 一種의 突風이 불고 있는 것 같다.

主權을 가진 民族임을 되새기고 國防을 비롯한 여러가지 問題를 우리 民族 스스로의 힘으로 解決하고 發展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文化·藝術分野에서 古典의인 것의 探究熱과 그것의 優越性을 強調하는 傾向은 大端하다. 韓國美術 五千年史를 비롯한 各種 古代美術品 도자기 古風의 家具等은 勿論 時代劇이나 音樂에 이르기까지 크게 流行하고 있다. 現代式 建物이나 家屋의 室內裝置, 衣服等에도 古風調의 악세짜리가 流行하고 있다. 秋夕을 休日로 制定한지는 오래이나 77年度末에는 舊正을 公休日로 하자는 論議가 크게 일고 있었다. 忠孝思想을 양양하기 爲하여 住宅配定에서 老父母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優先權을 준다는 制度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으나 族譜를 整備하고 發行하는 傾向도 크게 高調하고 있다.

*教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元來 이 自主 또는 主體意識은 그 民族에 危機意識이 감돌때 論議되는 것이 普通이며 오랫동안 제대로 主權의 行使를 해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느程度 經濟的인 基盤이 確立되어 가는 韓民族이 이러한 主體性 確立을 爲한 政府의 努力에 크게 呼應하는 것은 理解가 淺다. 그러나 政府에서 主體性과 自主性을 強調하는 것은 우리가 主權을 가진 民族임을 되새기고 國防을 비롯한 여러가지 우리의 問題를 우리의 힘으로 解決하고 發展시키자는 것이지 決코 우리의 옛것을 無條件 感傷的으로 崇尚하자는 뜻은 아니다.

本 研究의 目的도 따라서 半萬年의 歷史의 優秀性을 立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官僚體制속에 一般的으로 病理現象이라고 指稱되어 있는 바의 것들中, 特히 傳統文化的 要因들이 果然, 全的으로 病理的인 側面만이 있는가를 檢討하고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그러한 要因이 如何히 現代官僚組織에 病理로서 作用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韓國官僚制에 順機能的인 側面도 있다면 亦是 그러한 要因들의 어떠한 面이 어떻게 作用하는 것인지를 假說的으로 說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官僚主義라고 하는 말 自體가 主로 行政遲延, 形式主義, 規定至上主義 割據主義, 劃一主義等과 같은 大規模組織 特히 行政組織內的 여러 病理現象을 指稱하고 非難하는 것이며 이러한 現象은 어떠한 나라의 官僚制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特定한 國家에 限定된 것은 勿論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現象의 規模, 性質, 害毒의 程度와 種類 등은 그 社會의 政治的, 文化的, 經濟的 傳統의 差異에 依하여서도 크게 相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差異는 그러한 現象을 改善하고 是正하는 方法이나 節次의 效果性이라는 面에서도 相異한 結果를 가져온다. 말하자면 넓은 意味에 있어서 民族性 또는 國民性(nationality)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의 것에 依하여서도 그나라의 官僚制의 存在樣式이라든가 性格이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西洋사람의 概念이나 理論, 또는 標準에 依하여 現代의 韓國官僚文化를 說明하려고 試圖하는 것도 無意味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韓國의 官僚文化에 影響을 준 傳統文化와 關聯시켜서 前述한 病理現象을 살펴보는 것도 韓國의 官僚制를 理解하는 보다 더 効果적인 方法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本稿가 取하는 立場도 이와같은 것이다.

韓國의 官僚文化의 傳統의 特性 또는 要因이라고 指摘되는 事實들은 許多하다. 例를들면 體面意識, 立身出世主義, 權威主義, 義理意識, 事大思想, 官職私有思想, 官運意識, 割據主義, 形式主義, 勢道意識, 序列意識, 濫情主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事實들은 勿論 서로 直接, 間接으로 連關되어 있거나 因果關係에 있는 것도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特性에 다시 가장 크게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家意識 또는 家族至上主義를 中心으로 하여 그것이 現代의 韓國官僚行態에 如何히 作用하였는가를 腐敗現象과 같은 病理的인 側面뿐만 아니라 그것의 順機能的인 側面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家族關係의 特徵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移植되었다고 생각되는

割據主義現象과 義理意識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II. 韓國家族制度의 社會的特性

一般的으로 家族이란 夫婦를 中心으로 하여 그 近親者와 더불어 이루는 生活共同體를 말한다. 그리하여 그 集團에 屬하는 血緣者를 家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 또는 家族員의 範圍, 構造, 家族間의 關係, 行動樣式, 그리고 그 家族이라는 集團이 가지는 機能 같은 것은 時代나 그 民族의 自然的 社會的 歷史的 諸條件에 따라서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一般的인 事實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는 「家族」이라는 것의 意義에 關하여서이다. 西洋사람들이 家族(family)이라고 말할 때에는 —若干의 議論은 있으나—大體로 「同居集團(Coresidential)으로서 夫婦와 그 子女들 그리고 다른 親族(Kin)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다 더 血緣(Biological family) 關係보다는 Domestic group으로서의 家族을 말한다. 卽 宿食(dowelling and food)을 共有하는 集團을 말한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家族이라는 것은 英語의 family와 그 뜻이 몇가지 面에서 相異하다.

于先 우리의 境遇 家族은 주로 血緣關係에 重點을 둔 集團을 말한다. 따라서 그 家族構成員의 範圍가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여 훨씬 廣範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家族 構成員의 家意識은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여 훨씬 強하고 廣範하다. 勿論 西洋사람들에게도 Kennedy家, Adams家라는 式의 概念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家門, 門中, 집안 등의 말로 表現되는 家意識에 比하면 훨씬 덜 普遍的이고 弱하고 그 範圍가 좁다.

셋째, 西洋사람들에게는 우리의 境遇처럼 宗家, 큰집, 작은집 등의 概念이 없거나 極히 약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家族構成員들의 獨立的인 態度는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면 훨씬 弱하다. 換言하면 우리나라의 家族構成員間의 相互依存의 程度가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여 極히 強하다.

특히 이 네번째의 特徵은 韓國社會와 韓國國民을 西洋사람들의 눈에는 神秘스러운 것으로 만든 重要的 要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같은 家族制度가 土着化하여 내려온 歷史的 過程이나 時期 또는 地政學的 風土라든가 하는 것을 여기서 追求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家族 制度가 儒敎의 影響의 所産인 것만은 確實한 것같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뿌리깊게 韓國社會를 支配하고 있을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 Vol.5, 302p.

뿐만 아니라 장가 現代化된 것으로 간주되는 韓國官僚組織에 까지도 重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點이다.

勿論 1945年以後 特히 美國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젊은層에게 民主主義, 獨立性, 合理性, 個人의 權利等的 價値觀이 注入되었고 近者의 高度의 産業化 都市化로 因한 核家族化傾向을 몰고와서 一見 우리나라의 傳統的 家族關係가 一時에 崩壞되는 것 같은 印象마저 주고 있으나 韓國의 家族關係의 實態는 特히 前述한 몇가지 特徵面에서는 若干의 變質이 있을 뿐 그 根本的인 家族關係의 pattern은 如前히 뿌리깊이 남아 있는 것 같다. 大部分의 사람이 特히 이와같은 傳統的인 家族關係에서 오는 諸準則에서 벗어 났을 때에는 強한 죄책감을 意識하는 것 같다. 父母의 意見에 反對되는 配偶者나 職業을 選擇하였을 때에 또는 가난한 兄弟를 돌보아 주지 못했을 때에는 特히 그러하다. 그러한 罪책감은 民主主義 教育을 받고 獨立의 이어야 한다는 教育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그들은 試驗때의 正答처럼 輿論調査때에 그렇게 對答할지도 모르나 그것이 自己의 行爲에까지는 強하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또한 近者에 人情이 매말랐다, 世上이 삭막하다, 人心이 매말랐다, 道義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그속에 家族的 분위기라든가 溫情이 그림다는 態度의 表現이라고도 풀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共感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事實들은 傳統的 文化的 要因들이 經濟構造의 變化라든가 科學技術의 發展, 活潑한 國際交流等에 依하여서도 쉽게 變化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面의 變化를 意圖的으로 促進할 必要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問題는 그와같은 諸要因이 各分野에 어떠한 式으로 存在하여 있고 어떻게 機能하는 것인지 를 적어도 現代의 文脈속에서 把握해야 한다는 點이다.

이러한 우리의 傳統的 家族關係는 現代의 韓國의 官僚制에도 強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勿論 이와같은 영향은 單獨으로 또는 다른 政治的 經濟的 要因들과 併合하여 또는 相互作用하면서 이루어진다. 가령 強한 權威主義나 序列意識, 割據主義, 不正, 義理意識과 能率의 極大化現象과 上級者에 對한 強한 Royalty意識, 權限의 集中化現象, 官職私有思想等은 韓國의 家族關係에서 強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本研究에서는 주로 이러한 家族關係가 韓國官僚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割據主義와 義理意識을 中心으로 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III. 家族制度와 割據主義

1. 管割 또는 割據主義(sectionalism)와 家族主義

여기서 割據主義라고 하는 것은 Regionalism(地方主義)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割據主義는 가끔 地方的 色彩까지 띠는 경우가 없지 않다. 勿論 割據主義의 뜻이 元來

는 地方主義에 수반되는 地方的 偏見이라는 뜻도 包含되었으나 近者에 와서는 주로 官僚組織內部에서 엿보이는 派閥의 割據主義를 意味한다. 官僚組織內부의 各機關이 自己들의 權限과 無事만을 固執하고 양보라든가 協調를 하지 않는 現象으로서 그 程度의 差異는 相異할지 모르나 어떠한 나라의 大規模組織에서도 엿볼 수 있는 官僚制의 病理現象의 하나이다. 말하자면 管轄다툼과 一脈 相通한다. 옛날 우리의 祖上들은 兩班階級의 體統과 權益을 維持하기 爲하여 一般百姓인 常人을 對할 때에 極히 容易하게 團結한 바 있다. 또한 近者의 택시 運轉手들은 交通巡警의 團束活動에 對抗하고, 官僚組織內에서도 같은 部處 그리고 같은 部處內에서도 같은 局 또는 課에 所屬되어 있는 官吏들은 共同的 利益과 感情에 따라서 自己들은 內集團(in-group)으로 보며 自己를 그 內集團에 同一化하고, 自己가 屬하는 section以外的 사람들을 外集團(out-group)으로 보고 이들과는 競爭 또는 敵對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反目, 對立하는 現象을 보인다.

이와같은 現象이 惹起되는 原因은 아주 넓은 立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事實에 있는 것 같다. 하나는 官僚組織이 巨大化되고 客觀化되고 合理化되면 될수록 個個의 官吏들은 그러한 巨大한 機構속에서 個人的 無力함을 意識하게 된다. 卽 自己의 位置, 役割遂行, 影響力의 行使等에 自信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不安한 상태를 補償하기 爲하여 自己 自身을 그가 歸屬되어 있는 section에 一致시켜서 그들과 더불어 權益을 옹호 확장하고 情緒的인 安定을 얻을 수 있는 親密集團(informal group)을 求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集團에 더욱더 忠誠心을 增進시키게 된다.

또한 前述한 理由에 다음과 같은 事實이 作用한다. 卽 그들이 外集團(out-group)으로 看做하는 隣接 section이라든가 같은 分野의 專門家들은 그 官僚組織 밖에 있는 外部사람들과는 달리 그들과 보다 더 直接的으로 여러가지 利害關係 面에서 對立되는 關係에 있거나 競爭的인 關係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甚한 反感이라든가 憎惡感이 造成된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割據主義는 넓은 意味로서는 上述한바와 같이 同鄉, 出身學校, 軍의 同期生들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인연으로 어떠한 義理關係를 맺은 사람들끼리 官僚組織속에서 親密關係가 形成되어서, 卽 割據現象이 形成되어서 그 官僚組織 內에서 事實上 Hegemony를 爭取하고 人事問題라든가 其他 重要的 利權關係에서 一致團結하여 그들의 權益을 옹호하는 派閥現象같은 것도 包含한다.

이러한 割據現象은 우리의 官僚組織속에서 더욱 甚한 것 같다. 가령 같은 局內의 各課에서도 옆의 課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에 보다 더 關心을 갖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떠한 課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課에 情報를 提供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까닭에 他局이나 他部處에 關하여서는 오히려 新聞을 通하여 그 事情을 알고 있을 程度이다. 卽 一般的으로는 公式의 方式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境

過 以外는 自己 section에 關한 業務上의 情報를 提供하지 않는 것이 原則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勿論 이것은 業務의 性質上 原來 公開할 수 없는 內容의 것도 있으나 特히 近者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處하여 있는 安保上의 理由도 作用하여 이러한 秘密主義는 더욱 強化되는 것 같은 印象을 준다. 이러한 現象이 우리나라의 官僚組織內에 만연되는 理由는 위에 提示한 理由 以外에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指適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그 section에서의 業務의 企劃이나 決定이 다른 section의 權限을 侵犯하거나 侵犯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事實이다. 卽 이것은 그들의 批評이나 反撥 때문에 成事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고 判斷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section이 反對하여도 어쩔 수 없는 決定에 到達할 때까지 秘密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企劃이나 決定이 公正性이나 水準面에서 自信이 없는 경우이고, 셋째는 어떠한 種類의 機會라든가 merit 또는 情報를 獨占함으로써 競爭이나 질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現象은 같은 專門家集團에서도 강하게 엿보인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割據主義者와는 直接的으로는 關係가없으나…機關의 長이 그의 權威를 維持하는 手段의 하나로서도 秘密主義가 強要된다.

그러나 韓國의 官僚組織內의 割據主義는 이러한 모든 事實 以外에 또 하나의 그리고 아주 重要的 局面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곧 家族主義의 態度인 것이다. 家族至上主義의 社會化 過程을 거친 韓國사람들은 어떠한 意味에서 體質적으로 割據主義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家族主義自體는 割據主義의 要因을 다음과 같은 面에서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집안과 집밖의 限界가 지나치리만큼 뚜렷하다. 卽 「집안」이라든가 「家門」이라는 말 自體에 前述한 內集團 또는 we-group의 意識이 이미 包含되어 있다. 卽 韓國人들의 家族를 둘러싼 울타리는 大端히 堅固하고 높다. 이러한 心理的 物理的 울타리는 外部에서 構築된 것이 아니라 內部에서 主로 外部로부터의 간섭이나 侵略으로부터 家族를 保護하기 爲하여 構築한 것이다. 이것은 家族外의 사람들이 그 家族를 侵害하거나 干涉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一次的이나 二次的으로는 그들도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도 包含된다. 따라서 그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일이 일어나던 남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卽 적어도 自己집에 어떠한 式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限에 있어서는 干涉하지 않는 것이 常識이다. 國務會議때 他部處의 일에 크게 曰可曰否하지 않는다든가 局長會議때 他局所管의 일에 크게 干涉하지 않는 傾向이 그 例라고 할 수 있다.

흔히 韓國사람들이 公共意識이 희박하다는 것을 例를 들어 「도둑이야!」하고 소리치르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나 「불이야!」하고 외치면 나타난다고 한다.

韓國사람들의 公共意識, 告發意識 등이 弱한 것은 事實인 것 같고 이것은 現在의 여러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諸要因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는 것도 事實이나 그보다 더 根本的인 要因은 우리의 傳統的인 家族主義에 있는 것 같다. 卽 韓國사람들의 privacy는 家族의

울타리 안에서 保障되고 家族을 單位로 하는 것이 普通이나 西洋사람들의 privacy는 個人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다. 即 西洋사람들의 privacy는 個人的 私生活에 焦點을 둔 것이나, 韓國人の 그것은 그 家族의 울타리에 焦點을 둔 것이다. 即 韓國 家庭에서 家族構成員間의 干涉은——그것이 좋은 意味진 나쁜 意味진 間에——無限定이다. 심지어 며느리의 夫婦生活까지도 干涉을 한다. 그러나 西洋사람들의 家族들간의 간섭은 幼兒나 또는 特殊한 경우에 限定되어 있다. 原則的으로 家族構成員 한사람 한사람의 獨立性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아버지가 아들방에 들어 갈때에는 녹크를(들어가도 좋으냐고 물어보고)하고 아들이 房에서 대답할때(허가하면) 문을 여는 것이 慣例이다. 말하자면 家族構成員 個人을 中心으로 한 울타리가 있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에는 그러한 울타리는 前述한 바와 같이 家族을 單位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構成員 個人의 울타리는 집안에는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방에 들어갈 때에도 自己房門을 열고 들어가는 氣分으로 들어가는 것이 普通이고 慣例로 되어 있다.

이러한 文化的 差異는 極히 重要한 뜻을 갖는다.

于先 韓國사람들은 公共意識이 育成될 機會가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여 極히 不足했다는 事實이다. 即 西洋사람들은 自己 집안에 있는 것 中에서도 自己것과 남의 것의 限界가 比較的 뚜렷하다. 내돈, 네웃, 아버지 自動車, 兄의 自動車라는 式으로 그 限界가 뚜렷하다. 그러나 韓國사람들의 경우는 「우리」라는 울타리속에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兄웃, 동생신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웃이 兄의 품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왔으며 따라서 兄 以外的 家族은 그것을 着用할 수 없다는 뜻이지 根本的으로 兄 個人的 所有라는 뜻은 西洋사람들의 그것에 比하여 極히 弱한 것만은 事實이다. 또한 西洋사람들은 아버지房 어머니房, 兄房, 누이방 이라고 부르나 우리는 안방 건너방 아랫방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안방 우리의 건너방이라는 우리의 意識이 밝혀 있다. 말하자면 네것 내것이 없는 것이 韓國사람들의 집을타리내의 實情이다. 그러기 때문에 家族構成員 間에 「고맙다」는 말이 大部分의 경우 어색하다. 近者에 國民學校나 西洋化된 都市의 家庭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도록 敎育하기는 하나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西洋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家族들 間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은 家族들간에 네것 내것이 分明하고 서로 獨立性을 認定하는 바탕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이 普通인데 또는 그렇게까지 할 必要가 없는데 그렇게 하여주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自然스럽고 나아가 그들의 禮儀에 맞는다. 따라서 거기에는 또한 「그러나 나는 이 고마움에 報答하면 더욱 좋겠지만, 報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말라」라는 뜻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은 맛이 든다. 그러나 韓國의 家族은 모든 것이 우리라는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 용돈을 줄때에도 아버지의 立場에서 自己가 自己의 一部인 自己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은 어색한 것

이다. 아들은 다만 「신난다!」고 외치거나 빙그레 웃기만 한다. 그 웃는 아들(自己의 一部)을 보고 아버지의 氣分도 좋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韓國家庭이 共有, 또는 共同使用이라는 訓練을 받을 機會를 提供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卽 西洋사람들은 家族內의 네것 내것이 分明하나 그밖의 것은 共有또는 共同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따라서 自己것에 準하여 獨立인 家族構成員 한사람 한 사람이 協同하여 共同의 것을 自己것처럼 아끼고 保護하는 生活을 하여왔고 이렇게 形成된 生活態度는 그대로 家族밖의 社會生活에도 延長되고 適用되며 그들의 公衆道德 公共意識이라든가 告發精神의 土臺가 된 것 같다. 그러나 韓國家庭은 前述한 바와 같이 높은 울타리로서 우리의 것과 남의 것을 明白히 區分하였을 뿐이고 西洋사람들처럼 다시 家族과 나 사이의 울타리가 없으며 따라서 家族內에서 共有空間이 없었다 말하자면 公共意識을 培養할 場이 없었던 것으로 思慮된다. 이와같은 강한 울타리 意識속에서 社會化된 韓國人은 官僚組織속에게까지 그것을 移植한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西洋사람들의 官僚組織속의 割據主義보다 그 울타리가 堅固하다.

둘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家父長의 權威와 溫情에 依存하여 生活하는 習性을 길러왔으며 이것 또한 割據主義를 길러내는데 크게 寄與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家族關係는 家父長 또는 집안 어른을 頂點으로 하는 從的인 또는 從屬的(dependent)인 關係에서 生活을 하여왔다. 이것 亦是 西洋사람들의 獨立인 生活態度和 對照的이다. 西洋사람들은 적어도 自己一身에 關한 重要한 決定은 主로 自己가 스스로 내리는 것이 一般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結婚, 分家, 學校나 專攻의 選擇, 將來의 職業의 選擇에 이르기까지 主로 집안 어른 또는 家父長이 決定하는 것이 一般의이었다. 近者에 와서 西洋화된 또는 民主方式의 教育을 받은 子女들이 그와같은 問題에 關한 決定權이 自身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實際로 父母의 뜻에 反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에 父母에 對한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勿論, 父母들도 子女들의 그러한 決定에 섭섭한 感을 禁치 못하는 것이 普通인 것 같다. 이러한 感情은 그 後에는 子女들이 家族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남」이 되어가는 過程에 있는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서울大校學 行政大學院의 調査에 依하면 韓國사람들은 집안어른으로서의 家父長의 存在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卽 韓國사람들의 83.6%가 「家族중에 윗 어른이 한분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大學校學歷層에 있어서도 그러한 생각은 支配的이다(78.3%). 또한 同調査는 韓國 사람들의 72.2%가 父母의 意見에 反對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서울大 行政大 韓國家族意識調查報告書 1962年). 同 報告書에 依하면 이러한 反應은 學歷이 낮을수록 그리고 高年齡일수록 父母의 意見에 反對되는 일을 한 일이 없다는 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意見에 反하는 일을 한 일이 있다는 사람의 比率

1. 學歷別

2. 年齡別

學 歷	比 率	年 齡	比 率
無 學	7.5%	20 才 以 下	29.6%
한 글 解 得	9.9%	21 ~ 30	26.7%
書 堂	16.7%	31 ~ 40	23.3%
國 民 學 校 卒	14.2%	41 ~ 50	14.9%
中 學 校 卒	28.2%	51 ~ 60	12.9%
高 校 卒	32.6%	61 ~ 70	12.8%
大 卒	41.3%	71 ~ 80	10%

※註 上記 報告書 p. 225 및 p. 227.

이러한 事實은 적어도 그만한 比率의 韓國人이 父母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父母의 權威에의 服從的 態度는 父母의 立場에서는 이들을 돌보아줄 責任感이 수반되고 同時에 家族構成員의 立場에서는 父母로부터의 保護와 扶養을 期待하는 것이다. 다시 前述한 報告書에 依하면 「戶主가 戶籍上에 記載된 全家族을 만드시 扶養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使用에 「그렇다」 反應이 48.6%, 「아니다」가 48.0%로써 비슷한 比率의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에 對한 反應도 學歷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態度가 壓倒的으로 높다. 아마 前述한 質問에서 「戶籍上에 記載된 全家族」 그리고 「만드시」라는 말을 뺀다면 「그렇다」 比率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戶主가 生活能力이 없으면 戶主의 候補者인 長男이 그 責任을 背야한다고 大部分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同報告書는 提示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結果를 보인 또하나의 報告가 있다.

77年度 筆者의 調査에 依하면 「子女가 結婚을 하면 집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父母의 責任이라고 본다」는 사람이 全體的으로 40.2%, 그럴 필요없다는 사람은 39.8%, 그리고 모르겠다는 사람은 20.1%에 達하며 이러한 傾向은 農村이 더욱 짙다.

結婚하는 子女의 집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父母의 責任이라고 본다는 사람의 比率

	責 任 임	아 닙	모 름
大 都 市	34.2%	43.4%	22.5%
中 小 都 市	41.1%	41.3%	17.6%
產 業 都 市	46.7%	30.7%	21.8%
農 村	51.7%	29.8%	19.2%

※ 金海東外 住宅有效需要推定研究 1977. 大韓住宅公社

무엇에 依據하였는지 分明하지는 않으나 李圭泰氏는 李期末期에 우리의 祖上은 벼슬을 하던은 그 벼슬의 크기에 比例하여 扶養責任의 範圍가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아전(衙前)

이런 內4寸 外3寸까지, 正三品以上の 堂上官이면 內外 8寸까지, 그리고 判書나 觀察使가 되면은 20寸까지 가족 淸澈中 生活能力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常識化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事實은 韓國사람들은 前述한 두렵고 堅固한 家族의 울타리 속에서 父母의 뜻에 順應하고 그들의 保護와 溫情에 依하여 生活하는 習性을 오랫동안 길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支持하는 또 한가지 事實은 韓國의 家族間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고맙다」는 말이 不自然스러운 경우가 더욱 많다는 點이다. 即 父母의 溫情과 保護는 그리고 父母에의 順應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必要가 없을 程度로 當然視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生活態度는 官僚組織속으로도 移植되어 들어가서 割據主義 現象을 造成한다. 即 獨立的인 生活習性이 甚히 未洽한 韓國人은 집이 아닌, 公式的인 그리고 沒人間化된 官僚組織속에서 于先 情緒的으로 安定되지 못한 狀態를 補充 또는 代置하기 爲하여 私的인 關係의 形成을 希求한다. 即 그 section의 雰圍氣, 다른 構成員들의 性格이나 習慣, 그 section의 重要 慣例, 그리고 그 section에서 무엇을 더욱 重要視하고 무엇을 無視해도 좋고, 하는 式의 要領等에 關하여, 公的業務以外에 私的인 適應에 關聯되는 여러가지 事情을 助言하는 親切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말하자면 section의 私的 membership도 取得하는 것이다. 韓國官僚組織構成員의 日課後 會食의 機會가 얼마나 많은지는 누구나가 다 아는 事實이며 이러한 會食은 그 section의 私的인 團合을 더욱 견고히 한다. 이러한 私的인 membership에 加入됨으로써 얻는 報償과 加入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罰은 그 section이 갖는 權限과 그 權限의 行使에 있어서의 自由裁量權의 크기에 比例하는 것 같다. 또한 그러한 私的인 組織(primary group)에 對한 忠誠의 程度와 그러한 組織으로부터의 期待의 程度도 大體로 比例하는 것 같다. 여기서 그 section에 對한 忠誠은 前述한 바와 같은 秘密主義, 自己 section의 立場과 利害에 關하여는 추호도 양보를 하지 않는 態度……그와같은 양보는 많은 경우에 그의 內集團에 對한 背信으로 看做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橫的인 協助의 결집 등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75年度 以前의 出張旅費의 分配, 會食費調達等等은 이와 같은 割據主義의 그늘아래서 보다는 繁盛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다시 割據現象을 더욱 질게하는 結果를 招來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個個의 官僚는 그의 社會化 過程에서처럼 그의 section과 그의 長에 忠誠을 다하고 그의 section과 그 長의 保護와 溫情에 依하여 官僚組織에서 公式的으로 提供되는 것 以外의 많은 것을 提供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韓國의 割據現象은 後述하는 義理意識과 併合되며 順機能的인 面도 있다는 것을 指摘하여 둔다.

IV. 義理意識

우리나라의 家族制度가 官僚行態에 아직도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또하나의 事實은 義理意識이다. 이러한 義理意識은 西洋社會에서는 크게 浮刻되지 않는 東洋 특히 儒敎文化圈에 있는 社會의 固有한 意識으로서 우리나라 中國, 日本 사람들의 對人關係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元來 이 義理라는 것은 儒敎의 五倫의 하나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人間이 지킬 다섯가지 道理中的 하나이었으며 여기에서의 義理는 君臣의 關係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나라의 歷史的 展開過程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大體로 大同小異하게 變質되어 對人關係에 있어서 重要的 規範의 하나로서 現代人의 行爲를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對人關係를 規制하는 規範이라는 點에서는 같으나 그 밖에 여러가지 뜻이 加味되고 따라서 多樣하게 理解되고 있는 것 같다.

于先, 報恩이라는 뜻이 强하게 內包되어 있다. 卽 어떠한 式으로 신세를 지면 이것을 갚는 것이 義理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떠한 사람의 好意로 出世를 한다든가 돈을 벌면 후에 그 恩人에 報答하는 것이 正道라는 생각이다. 이때 이것을 저버린다면 報恩하지 않으면 背恩忘德 한 사람 또는 義理없는 사람으로 지탄을 받는다.

둘째, 親한 사람 또는 親熟했던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된다는 뜻이 包含되고 있다. 같이 成長하였다든가 같은 職場에 勤務했다든가, 같이 軍隊에 服務하였다든가 같은 教室에서 공부하였다든가 하는 사람들끼리는 前述한 경우보다 弱하기는 하나 서로 도와야 된다는 義務感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單純히 同窓이나 親舊끼리 이웃끼리 相扶相助한다는 뜻과는 다르다. 어떠한 差別的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다. 例들들면 어떤 官吏에게 親舊로부터 어떠한 그의 權限에 屬하는 付託을 하여 오면 적어도 그것이 그의 權限에 屬하는 限 不公正한 決定, 不合理的 決定, 또는 原則에 어긋나는 決定을 하여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一種의 義務感과 비슷한 것이다. 말하자면 「손이 안으로 굽어야 된다」는 뜻이다.

셋째는 어떠한 共通點 또는 共通的인 經驗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두번째 것보다 一般적으로 더욱 弱하기는 하나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같은 宗氏라든가 같은 故鄉 같은 學校出身이라든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는 間接적으로 關係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경우는 故鄉의 아버지와 三寸의 親舊라든가 親舊의 동생이나 아버지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關係때문에 付託이나 도움을 要請할 수 있는 處地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付託을 받은 사람의 立場으로서는 一種의 義務感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

(田中)首相의 옥중當選은 그리고 그를 투옥시키는데에 盡力한 人士들이 落選된 事實들은 西洋사람들의 不正腐敗의 概念과 尺度에 依하면 日本國民들의 腐敗의 程度를 말하는 것으로 理解될 수도 있으나 이것 亦是 日本사람들의 義理意識이라는 概念의 理解없이 納得이 가지 않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傳統的 家族制度가 直接 間接으로 現代官僚組織에 여러가지 病理現象을 造成하고 增加시킨 點이 있으나 反面으로는 이러한 家族制度和 連結되는 義理意識이나 割據主義에 依하여 韓國官僚組織이 가지는 여러가지 惡條件을 克服하고 西洋사람들의 立場이나 基準에서 보면 거의 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目標을 達成하는 主要 原動力으로서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이다.

近代化가 西洋化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包含하여 그것이 具體的 現象의 水準까지 내려가면 韓國의 傳統的인 現象을 說明하고 評價하고 分析하고 意味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大部分 西洋사람들의 特히 美國學者들의 價値나 理論 또는 概念 그리고 基準에 依하는 習慣이 붙은 사람들이 많다는 事實이다.

예를들면 英國의 경우는 어떻고 美國의 경우는 어떻고 가까운 日本의 경우는 어떤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實情이다 하는 式의 政策研究를 우리는 흔히 본다. 이러한 政策立案者나 研究者들의 마음속에는 大體로 韓國적인 것 特히 傳統的인 것은 非科學的이고 低水準이고 非合理的이고 非民主的이고 非能率的이고 반대로 그러한 나라들의 것이 正常的의이고 標準的의이고 客觀的의이고 理想的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正反對로……多分히 韓國의 感情的 反應의 所致라고 생각되나……客觀的인 條件없이 傳統的인 것을 極讚으로 始終一貫하는 사람들도 있다. 特히 序頭에서 말한바와 같이 近者의 復古調의 社會의 무드를 타고 우리의 歷史的 여러 記錄속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索出하여 百貨店式으로 羅列하여 놓는 傾向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 歷史的 文獻의 科學的 證據로서의 價値같은 것은 大體로 無視하는 것 같다. 옛날 어떤 사람의 말이 마치 그 時代의 思潮나 社會相을 自然히 代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態度이다.

必要한 것은 따라서 各分野에서 傳統的인 要因들을 體系的으로 分析把握하는 科學的인 態度和 그러한 要因들중에 保存強化하여야 할 것과 除去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要因을 識別하는 客觀的인 基準의 設定이다. 이와같은 基準은 勿論 우리 國民에게 또는 우리 國民이 어떠한 삶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삶을 願하느냐를 基礎로하여 設定되어야 한다.